

## 지혜 V.

### 내면이 복잡하면 삶도 복잡해집니다.

#### 1. 하늘의 지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땅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혜의 출처는 하늘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지혜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이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와 다른 하늘의 지혜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이 세상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이다.

[고린도전서 2:1, 4-8]

1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4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 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5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6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7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8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기록된 하늘의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와 완전히 다른 지혜이다. 바울은 7절에 '하나님의 지혜'라고 표현한다. 이것은 '세상의 지혜, 멸망하며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니라고 말한다(6절)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통치자들도 알 수 없는 비밀이라고 말한다(8절). 결국 '영'과 '육'을 말하는 것이다. 육으로 대변되는 땅의 세계관과 차원으로는 영적세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고 말한다.

바울은 그 당시 지식과 이성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다. 그가 깨달았던 하늘의 지혜는 무엇일까?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무엇이었을까?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차원은 무엇이었을까? 그 비밀을 '하나님의 지혜', '신령한 자'에 담아 선포하고 있다.

#### 2.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생각(지혜, 신령한 생각)을 방해하는 육의 생각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육의 생각이 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출발한 오염된 생각이 있다. 선악과를 먹은 타락한 인간이 만든 오염된 생각의 구조가 '바벨탑'이다. 한 마디로 육의 생각이다(육의 생각은 사망). 자신의 생각을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자 하는 오염된 생각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3.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이 땅의 궤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고린도후서 10:3-5]

3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4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5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5 이 무기로 우리는 여러 가지 헛된 이론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대항하는 온갖 교만한 사상을~ (현대인의 성경)

We destroy arguments and every lofty opinion raised the knowledge of God~

바울은 타락한 인간의 생각을 경고한다. 타락한 생각이 힘을 얻고있는 세상을 '견고한 요새'라고 표현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실제적인 견고한 진, 마귀의 요새가 있다고 언급한다.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 요새만큼 강하고 견고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이다. 견고하고 타락한 육의 생각. 이것이 만든 견고한 진이 나의 내면안에, 더 구체적으로 생각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바울은 이와같은 생각을 '궤변'이라고 말한다(4절). 그리고 그 궤변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궤변이란? '형식적인 논리로써, 거짓을 진실같이 교묘하게 꾸며대는 변론을 말한다.'

하늘의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거짓을 진실같이 꾸며대는 변론이 내안에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바울은 이와같은 인간의 생각을 '궤변'과 '교만'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보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진다.

### (1) 악한 논쟁, 궤변 (arguments)

인간의 악한 본성은 논리를 가지고 항상 자기주장을 펼치길 좋아한다. 모든 일에 대하여 논쟁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논쟁은 무엇인가? 논리를 가진 주장을 말한다. 논쟁은 자기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의 주장을 꺾으려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런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하나님의 뜻, 진리와도 논쟁하려 한다. 하나님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싶어한다. 대적한다. 반역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 (2) 고상한 의견, 교만 (every lofty opinion)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다. 영어로 보니 고상한 의견이다. 의견의 속성은 무엇인가? 다른 대안을 말하는 것이다. 논쟁과 다르다. 의견은 주장이 아니다. 다른 대안을 말하는 것이다. 더 부드러운 것 같다. 수용성이 있어 보인다.

사실 그 뿌리는 교만이다. 교만은 무엇인가? 자기의 능력에서 나오는 타인을 향한 '관용'이다. '내 능력으로, 내 관대함으로 내가 너를 구제하고 용서해줄리라' 는 마음이다. 수용적인 것 같고 넓은 마음을 가진 것 같지만, 사실 내 능력 밑으로 남을 내려보는 교만이다.

오늘날도 이와같은 교만, 고상한 의견이 가득하다. 고상한 의견으로 진리를 희석한다.

'성경은 맞아, 그런데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 없잖아. 이런 의견도 있어, 부인하는 것은 아니야, 꼭 진리를 향해 나가는 방법이 한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야. 넓은 마음으로 진리를 해석해봐'

이런 다원주의적 해석이 이 시대에 팽배하다. '비본질'로 '본질'을 흐리게 한다. 희석시킨다. 이들의 특징은 언제나 '방법론'이다. 그럴 듯 하게 들린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분의 방법론은 싫다. 따르기 싫다. 그러니 희석시키는 것이다.

## 4. 모든 원인은 '죄의 본성' 아래에 있는 '육신' 때문이다.

답은 간단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오염된 생각의 열매를 제거해서는 답이 없다. 그때 뿐이다. 또 열매가 달릴 것이다. 나무의 생명력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 있다. '뿌리'가 모든 자양분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뿌리가 처리되어야 한다. 죄의 본성으로 나오는 열매는 결국 '대적, 논쟁, 교만' 등으로 열매 맺는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이 되어 주셨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모든 죄의 본성을 처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논쟁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진짜 사랑에 기반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본이 되셨다. 더 큰 사랑을 보여주셨다. 진리는 '논쟁'의 거리도 '고상한 다른 의견'으로 대체되는 것도 아니다. 말이 아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셨다. 사랑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 주셨다. 자신을 희생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악한 생각을 굴복 시키셨다.

[고린도후서 10:5]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 5. 하늘의 지혜를 원하는가?

[고린도전서 2:2]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에 하늘의 지혜를 알게된 이유가 바로 십자가와 그 위에 못박히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십자가 안에있는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반역의 생각들이 죄의 본성이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죄의 본성을 발견하는 그 순간 바울은 십자가를 보았다. 그리고 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지를 알게 되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예수님 안에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가치있는 지혜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 순간 그 내면안에 있던 모든 복잡함의 생각들이 정리가 되었다.

그래서 복잡한 내면의 생각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고백한 것이다.

## 6. 십자가는 의견, 논쟁이 아니다.

진리는 논쟁, 의견의 대상도 아니다. 진리는 선포이다. 진리로 내면이 정렬되어 있어야 하늘의 지혜가 열린다. 다른 차원이 된다. 단순함이란 명확함을 말한다. 명확하니 보이는 것이다. 흐리멍텅한 이 세상이 십자가로 분명히 보이기 시작한다. 이 세상안에 있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세상의 이념, 지식 등 하나님 보다 높아진 것의 모든 종말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사람은 힘이 있다. 다스릴 수 있다.

이제 그 진리를 깨달은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왕이 보여주신 진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의견과 논쟁의 자리를 피해야 한다. 내 의견, 내 주장이 죽는자리, 죄의 본성이 처리되는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그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십자가! 하늘의 문이여!